

보도자료

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2. 1. 10.(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작성과	투자유치기획과
담당	과장 정경원, 정주지원팀장 김종철, 담당 신환희 (032-453-7355)

“IFEZ글로벌센터 한국어 교실 외국인들로부터 큰 인기” **지난해 5백여명 수강·반응도 좋아...올해 국제기구 근무 직장인 대상 점심 수업도 개설**

-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글로벌센터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.
- 인천경제청은 코로나 19가 확산된 이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한국어 교실이 지난해 총 3기에 걸쳐 36개 반이 운영됐으며 500명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수강했다고 10일 밝혔다.
- 수강생인 에마 나카이 씨는 “처음에 한글도 모르고 한국에 왔는데, IFEZ 글로벌센터에서 한국어 강좌를 1년 넘게 수강하면서 지금은 일상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”며 “정주 외국인의 입장에서 IFEZ 글로벌센터에서 이렇게 수준 좋은 한국어 수업을 제공해주는 점에 늘 감사드린다”고 말했다.
- 한국어 교실은 외국인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강화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일환으로 IFEZ 글로벌센터가 무료로 운영 중이며 초급, 중급, 고급 등 다양한 수준의 질 높은 강의를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.

- 인천경제청은 올해 한국어교실 운영 방침을 최근 확정, 1기를 10일에 개강해 총 14주간 운영한다. 대상은 1순위가 IFEZ, 2순위가 인천시 거주 외국인이다.
- 특히 올해에는 녹색기후기금(GCF) 등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심 회화 수업을 추가 개설해 정규과정 11개반, 특별과정 2개반을 운영할 계획이다.
- 정경원 인천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 “IFEZ 글로벌센터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”며 “앞으로도 정주 외국인에게 질 높은 한국어 강의를 제공, 언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- 한편, IFEZ 글로벌센터에서는 한국어 강좌 운영뿐만 아니라 지난해 「제1회 IFEZ한국어 말하기 대회」를 개최한 데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다각적으로 계획하고 있다.